

한국법제연구원 네팔입법위원회 대상 역량강화연수 실시



한국법제연구원은 2019년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네팔입법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총괄정책관을 대상으로 한 고위급 역량강화연수를 실시하였다.

네팔입법위원회는 네팔정부의 입법 제·개정 작업을 지원하며 네팔 법제의 성문화 및 일관성 확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한국법제연구원은 2017년 가을 네팔을 방문한 이래 네팔입법위원회와 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입법지원 및 연구 분야의 교류 협력을 도모해왔다. 네팔입법위원회에서는 지난 2년간 실무급 연수단을 2차례 한국에 보내 한국법제연구원이 제공하는 실무급 역량강화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이번에 개최된 고위급 연수에는 마드합 파우델(Madhab Paudel) 위원장, 베쉬 라즈 사미(Bhesh Raj Sharma) 부위원장, 치란지비 카날(Chiranjibi Khanal) 총괄정책관이 참석하였다.

고위급 연수의 첫날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아시아법연구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아시아법연구소의 고학수 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아시아법연구소의 활동 내용 및 미션에 대해 이해하고, 양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이후 헌법재판연구원을 방문하여 박종보 원장을 면담한 이후 헌법재판에 관한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헌법재판연구원에서는 한국의 헌법재판소라는 독특한 기관 및 그 기능과 존재의의에 관해 소개하였고 세계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던 대통령 탄핵에 있어 헌법재판소가 막중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 국민들도 헌법, 특히 헌법 제1조의 의미를 되새기고 헌법재판소의 의의를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네팔 고위급 연수단 3인은 큰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경청하였으며 질의응답시간을 이용하여 헌법재판소의 기능 및 탄핵 당시 여론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입국한 당일 연달아 두 기관을 방문하는 강행군을 한 연수단은 헌법재판연구원을 끝으로 연수 첫날을 마쳤다.



☎ 공효영
✉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전문연구원
✉ hykong@klri.re.kr

2일차 오전에는 국회의사당과 국회도서관 견학의 기회가 마련되었다. नेपाल입법위원회 고위급 연수단은 한국의 입법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직접 보기를 원하였고 안내를 받아 국회의사당의 본청을 견학하였다. 여당과 야당의 의석, 방청객 및 언론사, 해외 VIP들의 좌석과 한국 국회의사당의 역사적인 순간들에 관한 안내를 받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를 방문했을 때의 일화도 들을 수 있었다. 국회 본청 이후에 국회 도서관으로 이동하여 40만 권 이상의 장서를 갖춘 국내 최대 도서관을 견학하였다.

국회에서의 일정을 마친 연수단은 송도에 위치한 유엔상거래법위원회인 UNCITRAL로 향했다. नेपाल입법기관의 고위급을 직접 만날 기회가 흔치 않았던 탓에 UNCITRAL 아태지역 사무소에서는 नेपाल입법위원회 연수단을 반기며 नेपाल에서 채택중인 UNCITRAL 모델로 등의 활용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연수 3일차는 세종에 위치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진행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을 방문한 नेपाल 고위급 연수단은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을 예방하고 양 기관 간의 향후 교류협력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예방을 마친 뒤 잠시 법제연구원을 견학하였다. 이후 नेपाल 입법위원회 고위급 연수단은 법제연구원의 연구진들이 제공하는 한국의 입법체계 및 의약품본법에 관한 집중적인 강의를 들었으며, 또한 이번 방문을 기회 삼아 한국법제연구원이 사무국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 Asia Legal Information Network에 회원기관으로서 가입하는 ALIN 현장 서명식도 진행하였다. नेपाल입법위원회 고위급 연수의 마지막 날에는 글로벌 법제정책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었다. नेपाल의



네팔 입법위원회 고위급무원단 한국법연수가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법제전문가들을 모시고 नेपाल 현지의 사정을 들을 기회가 흔치 않은 탓에 섭외된 한국측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회의 시간 내내 큰 관심과 열정을 보였다.

라운드테이블의 첫 순서로 Madhab Paudel 위원장이 नेपाल의 입법 체계 및 핵심가치와 नेपाल의 입법절차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नेपाल 위원장의 발제에 이어 नेपाल과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의 전문가 3인의 발제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강상백 실장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नेपाल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체계 수립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2015년 이후 नेपाल 국민의 전반적인 보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의 운영 및 역량에는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성공사례 등을 नेपाल 측에 전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어여성정책연구원의 조혜승 부연구위원은 नेपाल에서 진행한 젠더 감수성교육환경 수립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नेपाल은 여전히 젠더 격차가 존재하기는 하

나 정부 및 의회기관의 일정 비율을 여성으로 채우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는 등 여성 사회포용성이 높은 국가이며, नेपाल 정부의 성인지적 교육환경 구축 노력으로 젠더 격차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조 부연구위원은 전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종인 변호사는 नेपाल의 카투만두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1년간 초청 교수로 있었던 경험을 공유하면서 नेपाल의 법제 및 정책을 비롯하여 नेपाल 사회 및 문화 전반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였다. 또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 인도연구소의 김찬완 교수가 토론으로 참석하여 한국과 नेपाल의 수력발전 분야 협력에 관한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नेपाल 관련 전문가들이 활발히 의견을 교류하고 네트워킹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नेपाल 입법기관의 고위급무원단의 한국 방문이라는 흔치 않은 기회를 맞아 한국과 नेपाल의 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및 연구기관, 학계의 참석자들은 양국 간의 교류 및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리 마련에 박수를 보냈다. Madhab Paudel 위원장을 비롯한 नेपाल 고위급 연수단 역시 4일간 이어진 수준 높은 연수 프로그램에 만족을 표시했으며 연수 기간 동안 한국 학계 및 정부 입법기관, 연구기관의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서 경험을 공유하고 배웠으며, 나아가 한국의 전문가들과 교류네트워크를 맺었다는 사실에 큰 의의를 둔다며 감사를 전해왔다.

한국법제연구원과 नेपाल입법위원회는 앞으로도 양해각서에 기반한 교류 협력의 노력을 아끼지 않기로 하였다. 향후에도 양 기관 간의 활발하고 실질적인 교류활동이 기대되는 바이다.



제2차 지역 법제 라운드 테이블-네팔의 입법체계 및 절차